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arental Support and Career Attitude Decisiveness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ocial Withdrawal

Hyung-Hee Kim*

*Professor, Dept. of Social Welfare, Gwangju Health University, Gwangju, Korea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support and career attitude decisiveness and the sequential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ocial withdrawal. Data from 1,773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Wave 6 of MAPS II were analyzed using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bootstrapping. Parental support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self-esteem and career attitude decisiveness and negatively associated with social withdrawal. Self-esteem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social withdrawal and positively associated with career attitude decisiveness, while social withdrawal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career attitude decisiveness. The sequential indirect effect through both mediators was significant. These findings clarify the interconnected roles of self-esteem and social withdrawal and suggest considering parental educational support and interest alongside these factors in career support for multicultural adolescents.

▶ **Key word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rental Support, Self-Esteem, Social Withdrawal, Career Attitude Decisiveness, Sequential Mediation

[요 약]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APS) 2기 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지지와 진로태도결정성 간의 구조적 관계와 그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의 순차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대상은 다문화청소년 1,773명이며,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및 부트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지지는 자아존중감 및 진로태도결정성과 정적 관계를, 사회적 위축과는 부적 관계를 보였다. 자아존중감은 진로태도결정성과 정적 관계를, 사회적 위축과는 부적 관계를 보였으며, 사회적 위축은 진로태도결정성과 부적 관계를 보였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을 통한 부모지지의 순차간접효과가 유의하였다.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부모지지와 진로태도결정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지원에서 부모의 교육적 지원과 관심,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위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주제어:** 다문화청소년, 부모지지,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진로태도결정성, 순차매개효과

- First Author: Hyung-Hee Kim, Corresponding Author: Hyung-Hee Kim
*Hyung-Hee Kim (kimhh@ghu.ac.kr), Dept. of Social Welfare, Gwangju Health University
- Received: 2026. 09. 01, Revised: 2026. 09. 30, Accepted: 2026. 10. 10.

I. Introduction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5년 교육기본 통계 조사」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등학교의 다문화학생은 202,208명으로 전년보다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1], 다문화청소년의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들의 성장과 발달 특성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진로발달은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과업으로, 이 시기에 형성된 진로태도는 이후의 진로선택과 준비행동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2]. 그러나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은 문화적응 수준과 지각된 진로장벽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 따라서 이들의 진로태도 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심리적 요인을 통합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환경적 요인 중 하나는 부모지지이다. 부모의 관심과 격려는 청소년이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진로탐색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돕는다.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진로·양육지원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준비성과 진로결정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4], 부모지지는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 이는 부모지지가 진로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심리적 과정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모로부터 충분한 지지를 받은 청소년은 자신을 가치 있고 유능한 존재로 인식하며[5], 높은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위축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6]. 반면 사회적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며, 이 과정에서 부모지지는 보호요인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 또한 부모 진로지지가 사회적 위축과 진로태도를 순차적으로 거쳐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도 확인되었다[8].

그러나 기존 연구는 부모지지와 진로결정 간의 직접적인 관계를 분석하거나 자아존중감, 학교적응, 우울 및 성취동기 등 특정 요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주로 초점을 두었다[4][5][7][8]. 최근에는 부모지지가 이중문화수용태도와 사회적 위축을 순차적으로 거쳐 진로태도결정성에 연결되는 경로가 검증되었으나[9],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을 연결한 순차간접경로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을 순차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긍정적인 자기평가와 대인관계에서의 참여가 서로 구분되면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의 지원을 지각하는 청소년은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할 수 있으며[5], 이러한 자기평가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위축되는 정도와 관련될 수 있다[6]. 진로탐색에는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에 대한 인식뿐 아니라 타인과의 교류를 통해 정보를 얻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측면도 포함된다. 따라서 부모지지와 관련된 자아존중감이 진로태도결정성과 연결되는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자기평가가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을 서로 독립된 매개요인으로만 다루기보다,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사회적 위축의 차이가 진로태도결정성과 연결되는 이론적 경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부모지지와 진로태도결정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의 개별적인 역할뿐 아니라, 긍정적인 자기평가와 대인관계의 어려움이 서로 연결되는 측면을 함께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기 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10], 부모지지,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및 진로태도결정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부모지지와 진로태도결정성 간의 직접경로와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위축을 통한 간접경로를 확인하고,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간접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지원에서 가족 차원의 지원과 심리·정서적 특성을 함께 고려하기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Theoretical Background

1. Related works

1.1 Parental Support

부모지지(parental support)는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관심, 애정, 존중 및 도움을 의미하며,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을 촉진하는 중요한 환경적 자원이다. 부모의 지지를 충분히 지각한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진로탐색과 의사결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부모의 정서적 격려와 진로 관련 정보 제공은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발달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으로 보고되었다[11][12]. 특히 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편견 등으로 진로발달에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다문화청소년에게 부모지지는 진로발달 과정에서 경험

하는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보호요인으로 기능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진로결정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5], 부모의 진로지지는 사회적 위축을 낮추고 진로태도 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 최근에는 부모지지가 이중문화수용태도와 사회적 위축을 순차적으로 거쳐 진로태도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도 확인되었다[9]. 따라서 부모지지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결정성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보일 뿐 아니라,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을 통한 간접적인 관련성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2 Self-Esteem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개인이 자신을 가치 있고 유능한 존재로 평가하는 전반적인 태도를 의미한다[13]. 높은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이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신뢰하고 진로탐색과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심리적 자원으로 작용한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에게 자아존중감은 부모지지가 진로발달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내적 자원이 될 수 있다. 최근 해외 종단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이후의 진로적응력과 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이는 진로적응력과 진로태도결정성이 서로 다른 개념임을 고려하더라도, 청소년의 진로발달에서 긍정적인 자기평가와 같은 개인 내적 자원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부모지지와 진로결정수준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5],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은 낮아지고 학교적응 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6].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부모지지와 정적 관계를, 사회적 위축과 부적 관계를, 진로태도결정성과 정적 관계를 보이며, 부모지지와 진로태도결정성 간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다.

1.3 Social Withdrawal

사회적 위축(social withdrawal)은 또래와 상호작용할 기회가 있음에도 관계 형성을 회피하고 혼자 있으려는 행동적 경향으로,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저해하는 요인이다[15]. 다문화청소년은 의사소통의 어려움, 차별 및 경제적 제약 등으로 사회적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는 진로결정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7].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6]. 선행연구에서는 사회적 위축이 부모 진로지지와 진로장벽의 관계를 매개하고, 진로태도와 함께 순차적인 간접경로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8]. 따라서 사회적 위축은 자아존중감 및 진로

태도결정성과 부적 관계를 보이는 요인으로, 자아존중감과 진로태도결정성 간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다.

1.4 Career Attitude Decisiveness

진로태도결정성(career attitude decisiveness)은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의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결정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진로태도 성숙도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이다[16].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은 문화적응 수준과 지각된 진로장벽 등의 영향을 받으며 시간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할 수 있다[3]. 부모지지와 자아존중감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반면[5], 사회적 위축은 진로결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7][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태도결정성을 부모지지, 자아존중감 및 사회적 위축과의 구조적 관계를 검토하기 위한 최종 결과변수로 설정하였다.

1.5 Relationships Among Variables

다문화청소년의 부모지지와 심리·사회적 적응 간의 관련성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어 왔다. Rho의 종단 연구에서는 부모지지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7], Kim과 Lim은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이 감소하고 학교적응 수준이 향상된다고 보고하였다[6]. 또한 사회적 위축과 같은 내재화 문제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7], 부모 진로지지가 사회적 위축과 진로태도를 거쳐 진로장벽으로 이어지는 순차적 경로도 확인된 바 있다[8]. 최근에는 부모지지가 이중문화수용태도와 사회적 위축을 순차적으로 거쳐 진로태도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검증되었다[9]. 이는 부모지지와 사회적 위축 및 진로태도결정성 간의 관계를 뒷받침하지만, 부모지지와 진로태도결정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간접경로는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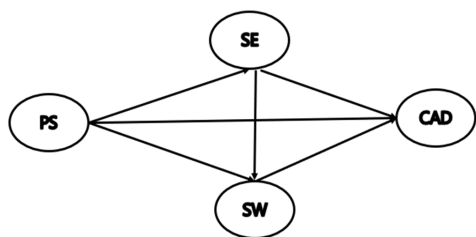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모지지를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교육적 지원과 관심을 포함한 환경적 자원으로,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내는 개인 내적 자원으로 설정하였다. 부모의 지원과 관심은 청소년이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평가하는 데 관련될 수 있으며[5][17], 이러한 자기평가는 대인관계에서 경험하는 위축 수준과 연결될 수 있다[6]. 또한 사회적 위축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및 진로탐색 참여의 어려움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진로태도결정성과의 관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7][8][9]. 이에 본 연구는 환경적 자

원인 부모지지, 개인내적 자원인 자아존중감, 대인관계 특성인 사회적 위축, 진로발달 결과인 진로태도결정성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이론적 간접경로를 설정하였다. 이는 두 변수의 개별 매개효과뿐 아니라 개인 내적 평가와 대인관계 특성을 함께 고려한 특정 순차간접효과를 검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다만 이러한 경로의 순서는 선행연구에 근거한 이론적 설정이며, 동일 시점 자료에서 실제 변화의 시간적 순서를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III. Research Method

1. Research Model

본 연구는 부모지지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결정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토하고, 이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의 개별 매개효과 및 순차매개효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부모지지는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진로결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환경적 요인이며[4][5],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은 부모지지가 진로발달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작용한다[6][7]. 또한 부모 진로지지가 사회적 위축과 진로태도를 순차적으로 거쳐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8]와 부모지지가 심리적 요인들을 통해 진로태도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순차적 경로도 확인되었다[9].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지지와 진로태도결정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간접경로를 설정하였다. 이 경로는 선행연구에 근거한 이론적 모형이며, 동일 시점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해당 경로와 일치하는 변수 간 관계가 나타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부모지지를 독립변수,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변수, 진로태도결정성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다.



PS: Parental Support, SE: Self-Esteem
SW: Social Withdrawal, CAD: Career Attitude Decisiveness

Fig. 1. Research model

2. Research Hypotheses

이상의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부모지지,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및 진로태도결정성 간의 구조적 관계와 순차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다.

- H1. 부모지지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결정성과 정(+)적 관계를 보일 것이다.
- H2. 부모지지는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정(+)적 관계를, 사회적 위축과 부(-)적 관계를 보일 것이다.
- H3. 자아존중감은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부(-)적 관계를, 진로태도결정성과 정(+)적 관계를 보이며, 사회적 위축은 진로태도결정성과 부(-)적 관계를 보일 것이다.
- H4. 부모지지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결정성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간접효과가 유의할 것이다.

3. Analytical Data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2기 6차년도(2024년) 자료를 활용하였다[10]. MAPS 2기는 국제결혼 가정의 국내 출생 및 중도입국 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종단적으로 추적하는 조사로, 학교생활, 심리·사회적 적응, 가족 및 진로 관련 특성을 포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6차년도 자료 중 부모지지,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및 진로태도결정성 문항에 유효하게 응답한 1,773명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다만 성별과 가정 경제 수준을 통제한 구조모형분석에서는 가정 경제 수준에 결측값이 있는 8명을 제외한 1,765명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4. Measurement Instruments

본 연구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MAPS 2기 6차년도 청소년 조사에서 사용된 측정문항을 활용하였다[10]. 각 변수의 문항 구성과 응답방식은 해당 설문지와 코드북을 통해 확인하였다. 모든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은 편이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부모지지는 코드북의 ‘부모의 지지(교육적 지원 및 기대)’에 해당하는 6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부모님(보호자)은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해주신다”, “부모님(보호자)은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주신다” 등 학업 및 진학 격려, 학교생활 지원, 자녀에 대한 관심과 필요한 자원 제공에 관한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아존중감은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는 .891이었다. 사회적 위축은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대인관계에서의 어색함과 자기표현의 어려움 등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는 .858이었다. 진로태도결정성은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놓았다”,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이다”,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힘들다” 등 자신의 진로에 대한 결정 정도와 선택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10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진로 미결정과 선택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부정 문항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태도결정성이 높음을 의미하도록 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cad2, cad4, cad5를 제외하고 최종 7문항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문항 제외 및 측정모형 수정에 관한 내용은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에 제시하였다. Cronbach's α 는 .883이었다.

5. Data Analysis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21.0과 AMOS 21.0을 활용하였다. 먼저 주요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고, Cronbach's α 를 산출하여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검토하였다[18]. 다음으로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통해 부모지지,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및 진로태도결정성으로 구성된 측정모형의 적합도와 수렴타당도 및 판별타당도를 검증하였다[19][20]. 이후 성별과 가정경제수준을 통제한 구조방정식모형(SEM)을 적용하여 변수 간 구조적 관계와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20]. 또한 부모지지와 진로태도결정성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을 통한 개별 간접효과 및 순차 간접효과를 패턴변수를 설정하여 검증하였다[21].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5,000회를 실시하고 편향수정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는지를 기준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판단하였다[22].

IV. Empirical Analysis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다문화청소년 1,773명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 남학생은 915명(51.6%), 여학생은 858명(48.4%)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중소도시가 929명(52.4%)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도시 560명(31.6%), 읍·면 지역 284명(16.0%) 순이었다. 가정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결측값 8명을 제외한 1,765명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 ‘보통이다’가 1,136명(64.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주관적 학교성적 수준 역시 ‘보통이다’가 903명(50.9%)으로 가장 많았다.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Variables	Categories	frequency	percent
Gender	Male	915	51.6
	Female	858	48.4
Area	Metropolitan City	560	31.6
	Small/Mid-Sized City	929	52.4
	Rural Area (Eup/Myeon)	284	16.0
INC*	Very Difficult	63	3.6
	Difficult	468	26.5
	Average	1,136	64.4
	Affluent	94	5.3
	Very Affluent	4	0.2
SACH**	Very Low	80	4.5
	Low	391	22.1
	Average	903	50.9
	High	351	19.8
	Very High	48	2.7
*: Perceived Household Economic Status **: Subjective Academic Achievement Note. For perceived household economic status, valid n = 1,765 due to 8 missing cases.			

2.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and Correlations

주요 연구변수의 기술통계, 신뢰도 및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평균은 부모지지 3.243(SD=.486), 자아존중감 3.233(SD=.559), 사회적 위축 2.222(SD=.795), 진로태도결정성 2.491(SD=.665)로 나타났다. 왜도는 -.283~.227, 첨도는 -.739~.339의 범위로 나타나 단변량 정규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20].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검토한 결과, Cronbach's α 는 .858~.891로 나타나 모든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하였다[18].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r|=.151\sim.447$, $p<.001$). 부모지지와 자아존중감은 진로

태도결정성과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사회적 위축은 부모 지지, 자아존중감 및 진로태도결정성과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상관관계의 방향은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관계와 일치하였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Reliability, and Correlations among Study Variables

(n = 1,773)

	(1)	(2)	(3)	(4)
PS (1)	1			
SE (2)	0.447***	1		
SW (3)	-.171***	-.239***	1	
CAD (4)	0.151***	0.186***	-.208***	1
M	3.243	3.233	2.222	2.491
SD	0.486	0.559	0.795	0.665
Skewness	-0.194	-0.283	0.101	0.227
Kurtosis	0.321	0.339	-0.739	-0.277
Cronbach's α	0.873	0.891	0.858	0.883
***p<.001				
PS: Parental Support				
SE: Self-Esteem				
SW: Social Withdrawal				
CAD: Career Attitude Decisiveness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of the Measurement Model

구조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측정변수들이 각 잠재변수를 적절하게 설명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은 표준화 요인부하량과 전반적인 모형적합도 지수를 중심으로 평가하였으며, 수정지수는 문항의 내용적·이론적 관련성을 함께 고려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20]. 부모지지 6문항, 자아존중감 3문항, 사회적 위축 3문항 및 진로태도결정성 10문항을 투입한 초기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2,750.227(df=203, p<.001)$, $\chi^2/df=13.548$, CFI=.873, TLI=.856, RMSEA=.084(90% CI=.081~.087)로 나타나 전반적인 적합도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에 표준화 요인부하량과 수정지수를 검토하고 각 측정문항의 내용적·이론적 적절성을 함께 고려하여 측정모형을 수정하였다. 초기 측정모형에서 진로태도결정성 문항 중 cad2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은 .287로 .50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 cad4와 cad5의 표준화 요인부하량은 각각 .587과 .511로 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다른 진로태도결정성 문항과의 측정오차 간 수정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에 세 문항의 통계적 특성과 내용적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측정모형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동일 잠재변수에 속하면서 내용적 관련성이 있는 cad3과 cad7, cad9와 cad10의 측정오차 간 공분산을 설정하였다. 수정된 최종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chi^2=1,124.730(df=144, p<.001)$, $\chi^2/df=7.811$, GFI=.936, AGFI=.915, NFI=.938, IFI=.946, TLI=.936, CFI=.946, RMR=.030, RMSEA=.062(90% CI=.059~.065)로 나타났다. χ^2 와 χ^2/df 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검토한 결과[20], 증분적합지수는 모두 .90 이상이었고 RMR과 RMSEA도 수용 기준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최종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초기모형과 최종모형의 적합도 비교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Goodness-of-Fit Indices for the Initial and Final Measurement Models

	Initial model	Final model
$\chi^2(df)$	2,750.227(203)***	1,124.730(144)***
CMIN/DF	13.548	7.811
GFI	0.832	0.936
AGFI	0.791	0.915
NFI	0.865	0.938
IFI	0.873	0.946
TLI	0.856	0.936
CFI	0.873	0.946
RMR	0.039	0.030
RMSEA	0.084	0.062
***p<.001		

수렴타당도와 구성개념신뢰도를 검증한 결과 표준화 요인 부하량은 .580~.874로 모두 .50 이상이였으며, 기준 문항을 제외한 모든 요인부하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001$). 구성개념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는 .859~.892로 .70 이상이었고, 평균분산추출(AVE)은 .507~.734로 .50 이상으로 나타나 수렴타당도와 구성개념타당도가 확보되었다[19]. 구체적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판별타당도는 Fornell과 Larcker의 기준에 따라 각 잠재변수의 AVE 제곱근과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를 비교하여 검증하였다[19]. AVE 제곱근은 부모지지 .737, 자아존중감 .857, 사회적 위축 .818, 진로태도결정성 .712로 나타났다. 모든 해당 잠재변수와 다른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의 절댓값보다 컸다. 또한 잠재변수 간 상관계수의 제곱 값은 각 구성개념의 AVE보다 낮게 나타나 측정모형의 판별타당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Structural Model Analysis

측정모형의 적합성, 수렴타당도 및 판별타당도가 확보됨에 따라 부모지지,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및 진로태도결정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구조모형분석에서는 연구변수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성별

Table 4.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vergent Validity, and Construct Reliability

Variable		B	β	C.R.	AVE	CR
PS	ps1	1.000	.703	-	0.543	0.876
	ps2	1.147	.790	30.427***		
	ps3	1.227	.826	31.624***		
	ps4	1.234	.758	29.312***		
	ps5	1.052	.740	28.660***		
	ps6	.812	.580	22.726***		
SE	se1	.937	.874	43.157***	0.734	0.892
	se2	.935	.853	42.141***		
	se3	1.000	.843	-		
SW	sw1	.977	.823	34.845***	0.669	0.859
	sw2	.914	.821	34.803***		
	sw3	1.000	.810	-		
CAD	cad1	1.000	.874	-	0.507	0.876
	cad3	.888	.751	34.729***		
	cad6	.718	.597	26.514***		
	cad7	.976	.803	38.331***		
	cad8	.751	.638	28.873***		
	cad9	.768	.636	28.661***		
	cad10	.778	.638	28.787***		

Note. B=unstandardized factor loading; β =standardized factor loading; C.R.=critical ratio;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CR=construct reliability. *** $p < .001$.

과 가정경제수준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가정경제수준에서 결측값 8명을 제외한 1,765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성별과 가정경제수준이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및 진로태도결정성에 미치는 직접경로를 설정하였다. 또한 외생변수인 부모지지, 성별 및 가정경제수준 간에 공분산을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를 포함한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chi^2 = 1,160.489$ (df=174, $p < .001$), $\chi^2/df = 6.669$, GFI=.940, AGFI=.920, NFI=.936, IFI=.945, TLI=.934, CFI=.945, RMR=.027, RMSEA=.057(90% CI=.054~.060)로 나타났다. χ^2 와 χ^2/df 는 표본 크기에 민감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다른 적합도 지수를 함께 검토한 결과[20], 증분적합도지수는 모두 .90 이상이었고, RMR은 .05 이하, RMSEA는 .08 이하로 모두 수용 기준을 충족하였다. 따라서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전반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적합도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Goodness-of-Fit Indices for the Structural Model

	χ^2/p	CMIN/DF	IFI	TLI	CFI	RMSEA
Model Fit	1,160.489 (174)***	6.669	0.945	0.934	0.945	0.057
*** $p < .001$						

구조경로를 분석한 결과, 부모지지는 자아존중감과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고($B = .648$, $\beta = .496$, $p < .001$), 사회적 위축과는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였으며($B = -.173$, $\beta =$

$-.095$, $p = .003$), 진로태도결정성과는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B = .120$, $\beta = .070$, $p = .026$). 이에 따라 부모지지와 진로태도결정성 간의 정적 관계를 예측한 가설 1과 부모지지가 자아존중감과 정적 관계를, 사회적 위축과 부적 관계를 보일 것으로 예측한 가설 2가 지지되었다.

자아존중감은 사회적 위축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였고($B = -.304$, $\beta = -.220$, $p < .001$), 진로태도결정성과는 유의한 정적 관계를 보였다($B = .182$, $\beta = .139$, $p < .001$). 또한 사회적 위축은 진로태도결정성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였다($B = -.156$, $\beta = -.164$, $p < .001$). 이에 따라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및 진로태도결정성 간의 관계를 예측한 가설 3이 지지되었다. 구조경로 분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통제변수 중 성별은 자아존중감에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였으나($B = -.095$, $\beta = -.086$, $p < .001$), 사회적 위축($B = .017$, $\beta = .011$, $p = .649$)과 진로태도결정성($B = .012$, $\beta = .009$, $p = .728$)에는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은 남학생 1, 여학생 2로 코딩되었으므로, 다른 변수들을 통제 한 상태에서 여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남학생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경제수준은 자아존중감($B = .026$, $\beta = .030$, $p = .189$), 사회적 위축($B = -.022$, $\beta = -.018$, $p = .477$) 및 진로태도결정성($B = -.050$, $\beta = -.043$, $p = .079$)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Table 6. Path Coefficients of the Structural Model

Path	B	S.E.	β	p	C.R.
PS $\rightarrow$ SE	.648	.036	.496	<.001	17.819
PS $\rightarrow$ SW	-.173	.058	-.095	.003	-2.986
PS $\rightarrow$ CAD	.120	.054	.070	.026	2.223
SE $\rightarrow$ SW	-.304	.045	-.220	<.001	-6.817
SE $\rightarrow$ CAD	.182	.042	.139	<.001	4.312
SW $\rightarrow$ CAD	-.156	.027	-.164	<.001	-5.858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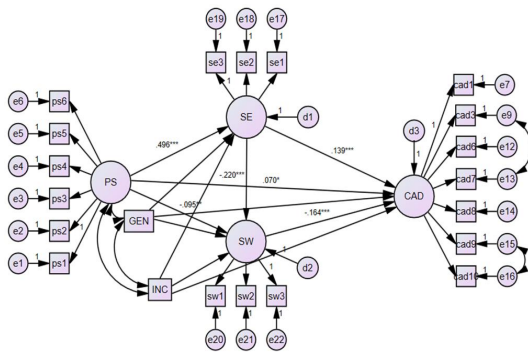


Fig. 2. Results of the Structural Model

Note. Standardized path coefficients are presented. Gender and perceived household economic status were controlled.
*p<.05, **p<.01, ***p<.001

구조모형의 설명력을 살펴본 결과, 자아존중감의 설명력은 26.3%($R^2=.263$), 사회적 위축은 8.1%($R^2=.081$), 진로태도결정성은 7.7%($R^2=.07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의 개별 간접효과 및 순차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팬텀변수를 활용한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하였다. 부트스트랩 재표집 횟수는 5,000회로 설정하였으며, 편향수정(bias-corrected)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21][22].

분석 결과, 부모지지와 진로태도결정성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을 통한 개별 간접효과는 $B=.109$ (95% CI [.047, .177], $p<.001$), 사회적 위축을 통한 개별 간접효과는 $B=.026$ (95% CI [.008, .051], $p=.003$)으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특정 간접효과는 $B=.031$ (95% CI [.018, .049], $p<.001$)로 유의하였으며, 총간접효과 역시 $B=.166$ (95% CI [.104, .239], $p<.001$)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부모지지와 진로태도결정성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을 통한 개별 간접경로뿐 아니라 두 변수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이론적 간접경로와 일치하는 관계가 확인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순차간접효과를 예측한 가설 4는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다만 이러한 결과가 실제 심리적 변화의 시간적 순서나 변수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검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Bootstrap Tests of Specific and Total Indirect Effects

Indirect path	B	BC 95% CI	p
PS $\rightarrow$ SE $\rightarrow$ CAD	.109	[.047, .177]	<.001
PS $\rightarrow$ SW $\rightarrow$ CAD	.026	[.008, .051]	.003
PS $\rightarrow$ SE $\rightarrow$ SW $\rightarrow$ CAD	.031	[.018, .049]	<.001
Total indirect effect	.166	[.104, .239]	<.001

Note. B=unstandardized indirect effect; BC=bias-corrected; CI=confidence interval; Bootstrap resamples=5,000; GEN and INC were controlled.

V. Conclusions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지지와 진로태도결정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 그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의 순차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기 6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성별과 가정경제수준을 통제한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지지는 진로태도결정성 및 자아존중감과 정적 관계를, 사회적 위축과 부적 관계를 보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진로태도결정성과 정적 관계를, 사회적 위축과 부적 관계를 보였으며, 사회적 위축은 진로태도결정성과 부적 관계를 보였다. 다만 부모지지와 진로태도결정성 간의 직접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표준화 경로계수($\beta=.070$)가 작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통계적 유의성과 효과크기를 구분하여 연구결과를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결과는 부모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진로결정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선행연구[5]와 일치하며,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위축이 낮아진다는 선행연구[6]를 뒷받침한다. 또한 사회적 위축이 진로결정을 저해하고 부모지지가 이를 완화하는 보호요인으로 기능한다는 결과는 선행연구[7][8][9]와도 맥을 같이 한다. 특히 부모지지와 진로태도결정성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을 통한 개별 간접효과가 각각 유의하였으며, 두 변수를 순차적으로 연결한 특정 간접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이 각각 개별적인 간접경로를 형성할 뿐 아니라, 긍정적인 자기평가와 대인관계 특성을 연결한 이론적 순차간접경로 역시 통계적으로 지지되었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지지가 이중문화수용태도와 사회적 위축을 순차적으로 거쳐 진로태도결정성에 이르는 경로가 확인된 바 있다[9]. 본 연구는 이와 달리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 간의 관계를 함께 고려하여, 부모지지와 진로태도결정성

사이에서 긍정적인 자기평가와 대인관계 특성을 연결한 간접경로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 따른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결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교육적 관심과 격려, 학교생활에 대한 지원 등 일상적인 부모지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의 언어적·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부모교육과 가족상담을 통해 자녀의 학업 및 학교생활에 대한 부모의 관심과 지원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교 진로교육에 강점 발견, 성공경험 및 자기표현 활동을 포함하여 다문화청소년이 자신의 능력과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셋째, 사회적으로 위축된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래관계 프로그램, 소집단 진로활동 및 심리상담을 제공함으로써 대인관계 형성과 진로탐색을 함께 지원할 필요가 있다. 결국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지원은 정보 제공을 넘어 부모지지 강화-자아존중감 증진-사회적 위축 완화를 연계하는 통합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부모지지와 진로태도결정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을 순차적으로 연결한 이론적 간접경로가 통계적으로 지지되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동일 시점에 수집된 자기보고 자료를 사용하였으므로 변수 간 인과관계와 시간적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또한 진로태도결정성에 대한 설명력이 7.7%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본 연구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추가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종단자료를 활용하여 변수 간 시간적 선후관계와 발달적 변화양상을 검증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교사 및 또래지지, 학교적응, 차별경험과 같은 다양한 개인적·환경적 요인을 포함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 과정을 보다 정교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Education and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Results of the 2025 Basic Educational Statistics Survey," August 2025.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boardSeq=103992>
- [2] I. H. Choi, "A Study on Changes in Career Maturity and Its Influencing Factors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 46, No. 1, pp. 161-186, March 2019. DOI: 10.22804/jke.2019.46.1.006
- [3] C. Yoo, "Longitudinal Profiles of Career Decision-Making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Current Psychology*, Vol. 44, pp. 17772-17791, November 2025. DOI: 10.1007/s12144-025-08494-4
- [4] H. H. Le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Career and Care Support for Multicultural Youth and Teacher Relations, Career Preparation and Career Determination,"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 25, No. 5, pp. 199-208, May 2020. DOI: 10.9708/jksci.2020.25.05.199
- [5] H. L. Chang, "The Influence of Parental Support on Career Decision-Making through Self-Esteem and School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No. 47, pp. 189-218, September 2019.
- [6] H. J. Kim, and J. C. Lim, "The Effect of Self-Esteem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Withdrawal,"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chool & Community Health Education*, Vol. 21, No. 1, pp. 105-115, May 2020.
- [7] H. J. Kwon, "The Relationships between Negative Affect, Parent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Korea,"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Vol. 51, No. 1, pp. 125-144, February 2024. DOI: 10.1177/08948453231213623
- [8] J. Im, and T. K. Kim, "The Effect of Multicultural Youth's Parental Career Support on Career Barriers: The Mediating Effect of Social Atrophy and Career Attitude," *The Journal of Korea Youth Activity*, Vol. 8, No. 2, pp. 1-29, June 2022. DOI: 10.36697/skya.2022.8.2.1
- [9] M. S. Lee, and U. J. Moon, "Effects of Parental Support Perceived by Multicultural Adolescents on Career Attitude Determination: The Sequential Mediation Roles of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and Social Withdrawal,"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Vol. 43, No. 4, pp. 105-115, December 2025. DOI: 10.7466/JFBL.2025.43.4.105
- [10] D. H. Shin, J. Y. Lee, and J. M. Lee, 2025 Multicultural Adolescents Longitudinal Study: Basic Analysis Report of the Second Cohort,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025.
- [11] S. L. Turner, A. Alliman-Brissett, R. T. Lapan, S. Udiipi, and D. Ergun, "The Career-Related Parent Support Scale,"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Vol. 36, No. 2, pp. 83-94, July 2003. DOI: 10.1080/07481756.2003.12069084
- [12] B. K. Keller, and S. C. Whiston, "The Role of Parental Influences on Young Adolescents'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Vol. 16, No. 2, pp. 198-217, May 2008. DOI: 10.1177/1069072707313206
- [13] U. Orth, and R. W. Robins, "Is High Self-Esteem Beneficial? Revisiting a Classic Question," *American Psychologist*, Vol. 77, No. 1, pp. 5-17, January 2022. DOI: 10.1037/amp0000922
- [14] L. Kvasková, P. Hlado, L. Juhaňák, and P. Macek, "Self-Esteem and Career Adaptability: Moderating Roles of Parental and Peer Support,"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Vol. 71, No. 2, pp. 84-96, June 2023. DOI: 10.1002/cdq.12319
- [15] K. H. Rubin, R. J. Coplan, and J. C. Bowker, "Social Withdrawal

- in Child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Vol. 60, pp. 141-171, January 2009. DOI: 10.1146/annurev.psych.60.110707.163642
- [16] K. H. Lee, and J. C. Han, “A Study on the Validation of Career Attitude Measurement Scale,”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No. 8, pp. 219-255, November 1997.
- [17] S. Rho, “Longitudinal Relationships Among Parental Support, Self-Esteem,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in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 Application of the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Journal of Social Sciences*, Vol. 18, No. 2, pp. 97-125, 2025. DOI: 10.54540/JSS18.2.4
- [18] J. C. Nunnally, and I. H. Bernstein, *Psychometric theory (3rd ed.)*. New York, NY: McGraw-Hill, 1994.
- [19] C. Fornell and D. F. Larcker,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Vol. 18, No. 1, pp. 39-50, 1981, DOI: 10.2307/3151312.
- [20] R. B. Kline,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4th ed.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2016.
- [21] S. Macho, and T. Ledermann, “Estimating, Testing, and Comparing Specific Effects in Structural Equation Models: The Phantom Model Approach,” *Psychological Methods*, Vol. 16, No. 1, pp. 34-43, March 2011. DOI: 10.1037/a0021763
- [22] K. J. Preacher, and A. F. Hayes, “Asymptotic and Resampling Strategies for Assessing and Comparing Indirect Effects in Multiple Mediator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Vol. 40, No. 3, pp. 879-891, August 2008. DOI: 10.3758/BRM.40.3.879

Authors



Hyung-Hee Kim received Ph.D. degree in Social Welfare from Chosun University, Korea, in 2022. Dr. Kim is currently a professor of Dept. of Social Welfare, Gwangju Health University.

She is interested in social welfare policy, youth welfare and disabled welfare, etc.